

# 可能世界 意味論에 관한 考察

金 永 培

## 1. 머 리 말

가능세계 의미론(possible world semantics)은 양화 양상 논리(quantified modal logic; 이하 QML로 씀)를 위한 형식적 의미론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주로 S. Kripke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그가 취한 방식은 모형이론(model theory)을 써서 QML을 위한 형식적 의미론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QML은 명제양상논리(propositional modal logic; 이하 PML로 씀)에 양화계산(quantificational calculus)이 결합된 체계로서 1946년 R. Barcan, R. Carnap 등에 의해 처음 시도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QML을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PML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복잡한 존재론적 문제들이 연루되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세계 의미론이 해결해야 할 첫째 과제로 드러났던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QML을 위한 형식적 의미론에서 핵심개념으로 나타난 ‘가능세계’(possible world)를 중심으로 가능세계 의미론이 연루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2. QML을 위한 형식적 의미론의 체계

QML을 위한 형식적 의미론을 살펴보기에 앞서 PML의 대표적인 체계를 간단히 정리해보는 것이 좋겠다.

M체계 :

AO. 모든 진리함수적 항진(truth-functional tautologies)

A 1.  $\Box A \supset A$ .

A 2.  $\Box(A \supset B) \supset \Box A \supset \Box B$ .

R 1.  $A, A \supset B / B$ .

R 2.  $A / \Box A$ .

여기서 AO.는 PM체계에 기초한 항진들이며, A, B, ...는 원자명제(atomic formula)들로부터 형성된 명제들이다. 규칙 R1, R2 외에 대입규칙(substitu-

tion rule)이 있지만 이는 공리(axiom)를 원자명제 대신에 도식(scheme)으로 잡을 경우 필요가 없다. 규칙 R1은 흔히 분리규칙(detachment rule) 혹은 MP(Modus Ponens)라고 불리우고 R2는 필연화 규칙(rule of necessitation)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비양상명제 논리에는 없는 것이다.<sup>1)</sup>

M체계에 다음의 공리도식(axiom scheme)을 더하면 S4 체계가 구해진다:

$$\Box A \supset \Box \Box A$$

그리고 Brouwer 체계는 M에다 다음의 것을 더하면 얻어진다:

$$A \supset \Box \Diamond A$$

또한 S5는 M에다 다음의 것을 더하면 얻어진다:<sup>2)</sup>

$$\Diamond A \supset \Box \Diamond A$$

### 2.1. S. Kripke의 모형구조

Kripke(1963)는 정규양상체계(normal modal system)<sup>3)</sup>을 위한 의미론을 마련키 위해서 (정규) 모형구조(normal model structure)를 도입한다. 모형구조는  $(G, K, R)$ 로 나타내지는데, 여기서  $G$ 는 '현실세계',  $K$ 는  $G$ 를 포함한 모든 '가능세계들'의 집합 그리고  $R$ 은  $K$ 에서의 재귀적(reflexive) 관계를 나타낸다. 두 가능세계  $H_1, H_2$ 가  $H_1 R H_2$ 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H_2$ 가  $H_1$ 에 '가능관계적임'(possible relative to)을 뜻한다. 즉,  $H_2$ 에서 참인 모든 명제들은  $H_1$ 에서 가능함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R$ 은 분명히 재귀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세계  $H$ 는 그 자신에 대한 "가능관계적" 세계이기 때문이다.  $H$ 에서 참인 명제는  $H$ 에서 가능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 때 M체계에 해당하는 모형구조에서  $R$ 이 추이적(transitive)이라고 한다면 Brouwer-모형구조,  $R$ 이 동치관계적(equivalent)이라고 한다면 S5-모형구조가 된다.

일단 모형구조가 주어지면, 각각의 세계  $H \in K$  안에 있어서 각각의 원자문장(명제변항)  $P$ 에 진리치(truth-value)를 할당하는 2항함수인 모형  $\phi(P, H)$ 가 필

- 1) M체계는, T체계로 더 잘 알려진 체계인데, R. Feys에 의해 1937년 처음 고안된 체계이다. 그는 처음에 이를 t체계라고 불렀는데, Sobocinski가 1953년 이를 T체계라고 불렀으며 von Wright(1951)의 M체계와 동일한 체계임을 증명했다. (cf. Hughes & Cresswell, p. 30.)
- 2) S4, S5 체계는 C. I. Lewis & C. H. Langford 공저 Symbolic Logic에 있는 S1~S5 체계중 S4, S5를 말한다. 그리고 Brouwer 체계는 M체계에 Becker 공리가 더해진 체계이다. (cf. Hughes & Cresswell, p. 58 주 37.)
- 3) 정규양상체계란 M체계의 정리들을 포함하고 R1, R2에 의해 단축된 체계를 말한다.

요하다. 일단 이런 모형이 주어지면 복합문장의 진리치 할당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phi(A, H)$ 와  $\phi(B, H)$ 가 모든  $H \in K$ 에 대해 정의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  
 $\phi(A, H) = \phi(B, H) = T$ 이라면  $\phi(A \wedge B, H) = T$ , 그렇지 않으면  $\phi(A \wedge B, H) = F$  다.  
 $\phi(A, H) = T$ 이면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iff)  $\phi(\sim A, H) = F$ 이다.  
 $H$ 와 가능관계적인 모든  $H'$ 에 대해서  $\phi(A, H') = T$  일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phi(\Box A, H) = T$ 이다.

여기서 아래와 같은 완전성 정리(completeness theorem)가 증명되면 한 양상체계에 있어서의 증명가능성(provability)이라는 통사론적 개념과 타당성(validity)이라는 의미론적 개념이 같은 것이 된다 :

완전성 정리 : 모든 모형  $\phi$ 에 대해  $\phi(A, G) = T$ 일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A$ 는  $M$ (혹은  $S4, S5, Brouwer$ )체계의 명제(thesis)이다.<sup>4)</sup>

이제 양화사(quantifier)가 도입된 양화모형구조(quantificational model structure)에서는 각각의  $H \in K$ 에  $H$ 의 영역  $\mathcal{W}(H)$ 를 할당해 주는  $\mathcal{W}$ 가 첨가된다.  $\mathcal{W}(H)$ 는  $H$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자들의 집합인데, 상이한 세계  $H_1, H_2$ 는 동일한 개별자들을 가질 필요는 없다.<sup>5)</sup>

일반적으로 모형은 양화계산(quantificational calculus)에서는 영역함수  $\mathcal{W}$ 와 진리치(혹은 외연)을 할당하는 함수  $\phi$ 로 나타내지는데 QML의 모형에서는 ( $\mathcal{W}, \phi$ )에 모형구조( $G, K, R$ )이 새로이 첨가된다.

Kripke는 양화된  $M$ 체계의 공리를 다음의 도식들에 달혀있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폐쇄문장(closed formula)들만이 주장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자유변항  $x$ 를 가지고 있는  $A(x)$ 와 같은 문장을 항상  $(x)A(x)$  형태의 문장으로 대체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sup>6)</sup>

(0) 모든 진리함수적 항진들.

(1)  $\Box A \supset A$ .

(2)  $\Box(A \supset B) \supset \Box A \supset \Box B$ .

(3)  $A \supset (x)A$ . (여기서  $x$ 는  $A$ 내의 자유변항이 아니다.)

4) S5의 완전성 증명은 Kripke(1959) 참조.

5) Kripke(1963)는 "따라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개별자가 다른 가능세계에 없을 수도 있고 현실세계에 없는 개별자가 다른 가능세계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물론 unicorn과 같은 신화적 존재가 다른 가능세계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cf. Kripke(1970) addenda pp. 763-769.)

6) Kripke(1963) p. 69 참조.

(4)  $(x)(A \supset B) \supset (x)A \supset (x)B$ .

(5)  $(y) ((x)A(x) \supset A(y))$ .

그리고 추론규칙으로서 MP만 필요하다.

Kripke의 이와 같은 체계의 특징은, 첫째 그것이 Prior의 Q체계처럼 PML을 수정한다거나, Hintikka의 경우처럼 대입규칙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것 없이 PML을 그대로 확장한 체계이고, 둘째 거기서는 Barcan formula나 그의 역이 도출되지 않으며, 셋째 그것은 빈영역(empty domain)이 허용되도록 수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양화이론의 모든 법칙이 성립한다는 점 등이다.

이제 존재술어(existence as a predicate)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존재술어는  $(G, K, R)$ 에서의 각각의 모형  $\phi$ 에 대해 그리고 모든  $H \in K$ 에 대해  $\phi(E, H) = \psi(H)$ 를 만족시키는 일원술어(monadic predicate)  $E(x)$ 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동일성 문장도 의미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x$ 와  $y$ 에 동일한 가치(value)가 주어지면 한 세계  $H$ 에서  $x = y$ 인 것으로 정의하면 된다. 이때  $E(x)$ 가  $(\exists y)(x = y)$ 를 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존재술어는 동일성문장으로 정의 가능할 것이다.

## 2. 2. J. Hintikka의 모형체계

Hintikka는 다음 일곱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문장들의 집합  $\mu$ 를 모형 집합(model set)이라고 한다. 하나의 모형집합은 하나의 가능한 사태(a possible state of affairs)에 대한 하나의 부분적 기술(a partial description)에 해당된다.

- (C.  $\sim$ )  $\mu$ 가 어떤 원자문장(atomic formula)이나 동일성문장을 포함한다면 그것의 부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 (C. &)  $(p \& q) \in \mu$ 이면,  $p \in \mu$ 이고  $q \in \mu$ 이다.
- (C.  $\vee$ )  $(p \vee q) \in \mu$ 이면,  $p \in \mu$ 이거나  $q \in \mu$ 이다.
- (C. E)  $(\exists x) p \in \mu$ 이면, 적어도 하나의 자유개별자 변항(free individual variable)  $a$ 에 대해  $p(a/x) \in \mu$ 이다.
- (C. U)  $(\forall x) p \in \mu$ 이고 자유 개별자 변항  $b$ 가 적어도,  $\mu$ 안의 한 문장에 나타나면  $p(b/x) \in \mu$ 이다.
- (C. self $\neq$ )  $\mu$ 는  $\sim(a = a)$ 형태의 어떤 문장도 포함하지 않는다.
- (C. =)  $p \in \mu$ 이고  $(a = b) \in \mu$ 이며  $p(a/b)$ 가  $q(a/b)$ 와 같은 문장이라고 한다면,  $q \in \mu$ 이다. (이때,  $p$ 는 원자문장 혹은 동일성문장)

여기서  $p(a/x)$ 는  $p$  안에 나타나는  $x$ 를  $a$ 로 대입한 문장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모형집합은 부분적 기술이긴 하지만, 그것이 기술하려고 하는 사태, 즉 하나의 “가능세계”가 진정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에 충분한 기술이다.”

모형집합들의 집합은 하나의 모형체계를 이룬다. 모형체계(model system)  $\Omega$ 는, 아래의 세조건을 만족하는 2항관계  $R$ 이 모형체계의 원소, 즉 모형집합들 사이에 정의되면, 이루어진다. 이 관계  $R$ 을 선택관계(alternativeness relation)라고 부르며 이러한 관계에 있는 세계를 선택적 세계라고 부른다.

(C. M\*)  $Mp \in \mu \in \Omega$ 이면,  $p$ 를 포함하고 있는,  $\mu$ 에 대한 선택집합  $\lambda \in \Omega$ 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C. N\*)  $Np \in \mu \in \Omega$ 이고,  $\nu \in \Omega$ 가  $\mu$ 의 선택집합이라면  $p \in \nu$ 이다.

(C. N)  $Np \in \mu \in \Omega$ 이면  $p \in \mu$ 이다.<sup>8)</sup>

여기서 (C. N)은 선택관계가 재귀적임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의미론적 체계는 M체계의 통사론적 체계와 같은 것이다. (즉 한 문장이 이 의미론적 체계에서 타당할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M에서 증명가능하다.) 그리고  $R$ 을 각각 추이적, 대칭적, 추이적이며 대칭적하도록 조건을 가하면, 각각 S4, Brouwer, S5 체계에 해당하는 의미론적 체계가 성립한다.

Hintikka 모형이론의 특징은 조건 (즉 규칙)을 변화시킴으로써 존재전제(existential presuppositions)를 배제한다든지, 숨겨진 가정을 명백한 전제(explicit premises)로 나타나게 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존재전제가 배제된 모형집합을 얻기 위해서는 (C. E), (C. U)를 각각 다음과 같이 바꾸면 된다:<sup>9)</sup>

(C. E<sub>0</sub>)  $(Ex) p \in \mu$ 이면, 적어도 하나의 자유 개별자 변항  $a$ 에 대해  $p(a/x)$ 이고  $(Ex) (a = x)$ 이다.

(C. U<sub>0</sub>)  $(Ux) p \in \mu$ 이고  $(Ex) (b = x)$ 이면,  $p(b/x) \in \mu$ 이다.<sup>10)</sup>

또한  $(Ex) NP(x) \supset N(Ex) P(x)$ <sup>11)</sup>과 같이, 일반적인 논리규칙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C. N<sub>0</sub>)를 다음의 조건으로 바꾸면 된다:

7) 이 기술은 하나의 ‘완전한 소설(complete novel)’로서, 더 이상 확장하면 비일관적이 되는, 일관적인 문장들의 집합이다. (cf. Hintikka(1969b) p. 154)

8) 여기서 M, N은 각각  $\Diamond$ ,  $\Box$ 에 해당하는 양상기호이다.

9) Hintikka(1966) p. 42, pp. 26-34. 참조.

(C.N\*)  $Np \in \mu \in \Omega$ 이고  $v \in \Omega$ 가  $\mu$ 의 선택집합이며,  $p$ 의 자유 개별자 변항 모두가 각각,  $v$ 의 다른 한 문장에 나타나면,  $p \in v$ 이다.

### 3. 가능세계의 문제

앞에서 살펴 본 QML을 위한 형식적 의미론(모형이론)에서 새로이 나타난 “가능세계”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곧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가능세계란 무엇이며, 한 가능세계  $H_1$ 에 속하는 어떤 대상이 다른 가능세계  $H_2$ 에 있는 어떤 대상과 동일할 수 있는가? 동일할 수 있다면 그 동일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동일성을 밝히는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동일한 대상을 가리킬 수 있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들과 이들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을 Kripke와 Hintikka는 각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QML 대신에, 대본이론(counterpart theory)에 근거하여 가능세계이론을 제시한 D. Lewis의 이론을 함께 살펴 보겠다.

#### 3.1. S. Kripke의 고정지시어 이론

3.1.1. Kripke는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표현을 고정지시어(rigid designator)라고 부른다. (1970, p.269; 1971, p.145.) 일반적으로 양상논리의 형식적 의미론에 있어서 한 낱말  $t$ 의 의미는, 각각의 가능세계  $H$ 에 그  $H$ 에서의 지시체를 할당해 주는 함수 — 이 함수는 부분함수일 수도 있는데 — 로 간주되는데 Kripke의 고정지시어의 경우에는 이 함수는 일정하다. (1970, p. 346 주 22)

Kripke에 의하면, 가능세계를 실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가능세계로 부터 출발하여, 그 다음에 통세계적 동일성확인의 기준(criteria of transworld

10) 여기서  $(Ex)(b=x)$ 는 Hintikka가 제시한 존재술어(predicate of existence)인데 그는 “존재는 존재양화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술어”로 본다. (C.  $E_0$ ), (C.  $U_0$ )로 바꿈에 따라, 고유명사 ‘Homer’를 위장된 기술로 간주하지 않고도 ‘Homer는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sim(Ex)(x=a)$  형태의 문장을 받아 들일 수 있는 보다 풍부한 체계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cf. Hintikka (1966), p. 34.), Hintikka (1963), p. 76.

11) Hintikka (1969 a) pp. 61-2. “모든 바퀴가 필연적으로 동글다고 받아 들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퀴들이 우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동근 대상들의 존재가 세계의 필연적 특징이라고 결론지어서는 안된다”라는 예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identification)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잘못된 생각방식이며, 오히려 현실세계에서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들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그러고난 뒤 그 대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 있나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가능세계란 “우리가 거기에 결합시키는 기술적 조건들(descriptive conditions)에 의해 주어지는” 세계, 바꾸어 말하면, “규정되는(stipulated) 세계이지 “특수한 망원경에 의해 발견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다. (1970, p. 267.)

Kripke의 고정지시어 이론에 따르면 일단 통세계적 동일성(transworld identity)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남을 것이다:

(1)어떤 종류의 표현들이 고정지시어가 될 수 있는가?

(2)통세계적 동일성을 갖는 대상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순수한 성질들의 다발’(a bundle of pure qualities)인가, 아니면 이 ‘성질들 밑에 깔려 있는 아무 속성도 없는 기체’(propertyless stratum underlying the qualities) 즉 ‘벌거숭이 개별자’(bare particular)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는 무엇인가?

(1)의 문제는 3.1.2.에서, (2)의 문제는 3.1.3.에서 각각 살펴 보도록 하겠다.

3.1.2. 한 대상을 지시하는 표현을 우리는 보통, 명사(noun)와 기술(description)로 나눈다. 명사는 다시 고유명사(proper name)와 일반명사(common name)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기술은 다시 한정기술(definite description)과 비한정기술(indefinite descrip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정지시어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은 어느 것들인가?

3.1.2.1. J. S. Mill에 의하면, 고유명사는 지시체(denotation)는 가지지만 내포(connotation)는 갖지 않으며, 일반명사는 내포만 갖고 외연, 즉 지시체는 갖지 않는다. 고유명사 외의 단칭명사는 한정기술로서 내포를 갖는다. Mill의 견해는 다음의 예로 설명될 수 있다:

‘Dartmouth’는 영국의 어떤 지명을 나타내도록 사용할 때 그 지명은 Dart 강의 어귀(mouth)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그런데 이제 Dart 강의 수로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더이상 Dartmouth는 Dart 강어귀에 있지 않다. 비록 그 이름이 Dart 강 어귀에 놓여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곳을 ‘Dartmouth’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Kripke에 의하면 ‘Dartmouth’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내포를 가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내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내포

(connotation)는 그 이름의 의미의 일부가 될 수 없다.

3.1.2.2. Frege (1891)에 있어서는, 함수 이외의 모든 것은 대상으로서 대상어에 해당하는 일상적 고유명사, 한정기술 및 문장은 모두 고유명사의 영역에 포함된다. (p. 32.) 이러한 Frege적 고유명사론에 충실한다면 “고유명사는 단순히 생략된 혹은 위장된 한정기술에 불과”할 것이다. (Kripke (1970), p. 255.)<sup>12)</sup>

3.1.2.3. Russell (1918)에 의하면, 하나의 개별자를 지시할 수 있는 표현은 ‘논리적 고유명사’ 뿐이다. (p.200.) 일반명사는 물론 직접적 ‘면식’(acquaintance)이 없는 고유명사, 가령 ‘Walter Scott’와 같은 고유명사도 사실상 ‘은폐된 한정기술’(disguised definite description)에 불과하며, 따라서 ‘this’ ‘that’과 같은 지시대명사만이 진정한 고유명사가 된다.

3.1.2.4. Wittgenstein (1922)에 있어서 이름은 대상과 직접지시(ostension)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무엇이고 대상이 무엇인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원자명제는 사태에 대한 그림(picture)의 관계에 있으며 이름이나 대상은 이 관계의 설명을 위한 논리적 요청에 의해 상정된 것에 불과하다.

3.1.2.5. Quine (1970)은 형식언어 지향적인 Russell의 노선에서 개별자상항  $a$ , 즉 고유명사를 불필요한(redundant) 것으로 배제한다. Quine에 따르면, ‘Fa’는 명백히 ‘ $(\exists x)(a = x \cdot Fx)$ ’와 동일하며 여기서 ‘a’는 ‘a =’의 형태 외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으므로 ‘a =’는 언제나 ‘A’라는 간단한 술어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필요가 없게 되고 ‘Fa’는 ‘ $(\exists x)(Ax \cdot Fx)$ ’에 의해 대치된다. 이때 ‘A’는 대상  $a$ 에만 해당되는 술어이다.<sup>13)</sup>

Quine의 이와 같은 작업은 ‘존재론적 개입’(ontological commitment), 즉 속박변항(bound variable)에 의존한 존재론적 개입에 관한 그의 기도와 관련된 것이다.<sup>14)</sup>

3.1.2.6. 고유명사와 한정기술의 관계를 일상언어적 접근을 통해 세밀히 분석한 사람으로는 Strawson과 Searle을 들 수 있겠다.

Strawson과 Searle은 고유명사를 기술로 간주하는 Russell의 입장을 표현과 사용, 즉 의미와 지시를 혼동하였다고 비난하면서,<sup>15)</sup> 고유명사와 기술의 역할을

12) Frege는 개념이나 관계를 함수의 특수한 경우로 보고 그 외의 “명확한 대상을 지시체로 갖는 말”은 고유명사로 간주한다. (Frege (1892), p. 57.)

13) Quine (1948), pp. 7-8.

14) Quine (1948), p. 12; Quine (1969 a).

15) Strawson (1950).



구분한다. Searle (1969)에 의하면 “이름 자체는 기술들의 집합과 논리적으로 동치”(p.172.)이지만, “고유명사가 기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못과 같은 역할”을 한다. (p.172.) Strawson (1959)도 고유명사에는 하나의 복합적 기술-이 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집단이 제시하는 기술인데-이 대응하고 여기에 다시 존재언명(existential statement)들의 집합이 전제로서 대응한다고 보고, 그 이름에 대응하는 전제집합중 “충분한” 부분만 참이면 그 이름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p.196.) 이것이 고유명사의 효율성을 보여 주는 점이라고 한다. 결국 Strawson - Searle의 입장은 한 고유명사가 전제집합중의 일부라도 만족시켜야만 지시하는 대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3.1.2.7. Kripke (1970)는 Mill의 고유명사론을 대체로 받아 들여서 고유명사는 외연만 갖고 내포는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고유명사는 ‘이러한 무엇’(the  $x$  such that  $\phi x$ )과 같은 한정기술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Kripke에 의하면, 하나의 지시체를 고정하기 위해서(to fix the referent) 그 지시체가 가진 속성에 관한 기술을 정의로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일단 지시체가 고정되면 그 지시체는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지시될 수 있다. (p.276.)가령 Nixon은, 어떤 가능한 사태에서, 1970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역시 ‘Nixon’은 실재하는 Nixon을 가리키는 것이고, ‘1970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란 기술이 가리키는, 예를 들면, Humphrey를 지시하지는 않는다. 이때 ‘어떤 가능한 사태’란 ‘실재하는 어떤 대상에 일어났을 수 있는 바’(what might have happen to it), 즉 하나의 ‘가능세계’이며, 고유명사 ‘Nixon’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동일한 대상 Nixon을 지시하는 고정지시어가 된다.

Kripke에 의하면 고유명사 외에도 일반명사중 자연종 명사(natural kind term), 예컨대 ‘호랑이’ 라든가 ‘물’, ‘열’, ‘금’등도 고정지시어에 속한다. (p.327) 우리는 ‘금’이 가리키는 지시체를 직접지시(ostension)를 통해서나 정의에 의해 고정할 수 있다. 이때 그 정의는 (완전하게) 필연적 진리를 표현하지 않는다. (p.328.) 즉 그 기술은 우연적 속성에 관한 기술일 수도 있으며, 또한 본질적 속성에 관한 기술일지라도 그것이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정의는 ‘금’과 동의어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직접지시나 기술에 의한 최초명명(initial baptism)의 경우 외에는, 보통 지시체는 이름이 그것을 통해 전해지는 인과적 연쇄(causal chain)의 도움으로 가리켜질 수 있다. (p.300; p.328) 여기서 인과적 연쇄는 역사적 인물과 같

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 직접 면식이 없는 대상의 경우에 최초명명에 의해 고정된 지시체를 그 이름을 전해들은 사람이 동일하게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인과적 연쇄가 그 이름을 쓰는 사람에게 항상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며 아예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시는 “집단내의 다른 사람들이나, 그 이름이 전해진 방식의 역사 등”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연쇄는 부정확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p. 301.) Donnellan (1972)도 Kripke와 거의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나는 ‘Thales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의 선생들이나 철학사로부터 배운 것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예에서처럼 종종 우리의 확인기술 (identifying description)들은 수많은 층의 의존적 도출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Thales에 대한 기술들은 Aristotle과 Herodotus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했던 말에 거슬러 간다. 그리고 만약 Thales가 존재했다면 그 줄(trail)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 이름의 사용의 배후에 있는 역사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 옛 영웅의 이름이 나타나는 구전(oral tradition)을 가진 국민이 그 역사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실재했던 사람의 업적에 관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들과 그들의 행적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도 있다.” (p. 373.)

이상과 같은 Kripke의 고정지시어 이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① 한 지시어 ‘a’가 고정지시어이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실재하는 대상 a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 ② 최초명명에 있어서는 a가 가진 우연적 속성에 관한 기술에 의존하는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지시체가 고정되면 ‘a’는 인과적 연쇄에 의해 ‘a’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 사람은 ‘a’만으로 그 지시체를 가리킬 수 있다. (이때 ‘a’는 Russell의 논리적 고유명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3.1.3. 그러면 고정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어떤 것인가? Kripke에 의하면 그 대상은 “순수한 성질들의 다발” 만으로 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벌거숭이 개별자”도 아니다. 한 개별자를 순수한 성질들의 다발로 본다면, 하나의 성질은 추상적 대상이므로 그것들의 다발은 보다 더 추상적인 대상이 되고 구체적 개별자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벌거숭이 개별자도 아니다. 벌거숭이 개별자라면 그것은 도저히 확인해 볼 수 없는 어떤 것일 뿐이다. “여기에 있는 책상은 나무로만 들어졌고 갈색이며 이방 안에 있다. 이 책상은 이 모든 속성들을 갖고 있으며 속

성들이 없는, 속성들의 배후에 있는 무엇이 아니다.” (1970, p.272.)

그렇다면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이런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인가? 명백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가능세계에서 그 개별자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본질적) 속성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3.1.3.1. Kripke는 본질적 속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교탁이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얼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교탁의 본질적 속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탁이 실제로 (in fact)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바로 이 교탁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 예를들어, Thames 강물을 얼구어서 만든 얼음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누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 Thames 강물을 얼구어서 거기서 나온 얼음으로 어떤 교탁을 만들었을 수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일단 그랬을 경우에 그는 어떤 다른 대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교탁은 아니었을 것이며 따라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교탁이 얼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경우는 갖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이것이 있는 이방 외의 판방에 바로 지금 있을 수는 있지만 애초에...얼음으로 만들어졌을 수는 없을 것이다.”<sup>16)</sup>

또,

“금이 원자번호 79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원자번호 79를 갖지 않는 무엇이 금일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금의 본성을 탐구하여 금이 원자번호 79를 가졌다는 것이 이 물질의 본성의 일부임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런데 원래 금을 확인 (identify)하는데 사용한 모든 속성들과 그 뒤에 발견된 여러 속성들을 가진 어떤 노란 금속을 발견한다고 하자. 이것의 예로는 황철광(iron pyrites) 즉 “가짜금”(fool’s gold)을 들 수 있겠다... 우리는 이 물질을 금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능세계를 생각해보자. 반사실적 상황(counterfactual situation)에서는 “가짜금” 즉 황철광이 실제로 미국, 남아프리카, 소련 등의 여러 산에서 발견된다고 하자. 지금 실제로 금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금대신 황철광 또는 금의 원자구조만 제외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자. 우리는 이 반사실적 상황에서 금은 (황철광이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소도 아니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이 상황을 금이 아닌 황철광이 실제로 금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산들에서 발견되었을 수 있고 우리가 보통 그것들로 금을 확인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졌을 수 있는 상황으로 기술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물질은 금이 아니며 어떤 다른 것일 것이다. 금이 원자번호 79를 갖지 않고 있을 때라도 이 가능세계에서 그것을 여

16) Kripke (1971), p. 152; (1970), p. 314.

전히 금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 (사람들이 반사실적으로 그 물질을 ‘금’이라고 불렀을까하는 것은 무관하다.)...그러므로 금이 원소가 아니었을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sup>17)</sup>

이와 같은 예에서 나타난 Kripke의 본질에 관한 견해는 일단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다:

- (1) 어떤 물질적 대상(material object)의 기원(origin)은 그 대상에 본질적이다.
- (2) 한 대상이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물질(substance)은 그 대상에 본질적이다.
- (3) 한 대상의 내적 구조는 그 대상에 본질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구별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즉, “한 대상이 존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어떤 속성들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어떤 속성들은 그 대상이 존속하는 동안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간적 물음과, “어떤 (무시간적) 속성들을 그 대상이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속성들을 (무시간적으로) 존재할 동안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무시간적) 필연성과 관련된 물음은 구별되어야 하며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후자의 물음이다. 따라서 탁자가 얼음으로 바뀌었을 수 있나 하는 것은 여기서 무관하다. 오히려 여기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그 탁자가 어떤 나무토막으로 만들어진 것은 필연적이고 또 그 토막이 어떤 특정한 종류의 나무로 된 것임을 본질적이라는 그런 문제이다.

그리고 주어진 대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 있나 하는 물음은, 어떤 순간까지 실제로 일어났던 것과 같이 세계가 진행되었지만, 그 순간부터 그 대상에 일어난 변화의 행로(vicissitude)가 달랐을 수 있나 하는 물음으로 풀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역사로부터 갈라지는 순간은 그 대상 자체가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의 어떤 때일 수 있다. 예컨대 내가 아마 그당시 존재하지 않았을 때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나온 그 수정란에 어떻게 손상이 가해져서 내가 불구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기원이나 물질적 구성(substantial makeup) 외에도, 가령 ‘하나의 탁자임’(being a table)과 같은 것도 본질적 속성이다. 그 탁자가 만들어진 바로 그 나무토막으로부터 꽃병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이때에는 그 탁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적 속성을 밝히는 문제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우선 모호성(vagueness)이 게재하게 되고, 또 하나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도출가능한

17) Kripke (1970), pp. 319-20.

속성들이 복잡하게 연루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질을 밝히는 작업은 경험적 탐구이고 여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를 것이다.)

Kripke는, 이와 같은 본질주의적 입장이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우연적 진리(necessary-contingent truth)의 구별과 선험적-경험적 진리(a priori-a posteriori truth)의 구별이 명확히 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가령, 1m 라는 길이의 단위를 정하기 위해서 Paris에 있는 어떤 막대 S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자. 그 경우 우리는 '1m는(시간  $t_0$ 에서의) 막대 S의 길이이다'고 정의할 것이다. 이 정의에서 '1m'가 가리키는 특정한 길이의 표준을 고정하기 위하여 어떤 우연적 사실에 의존한다. 그 막대 S는  $t_0$ 에 열이나 압력을 받아 실제의 길이와 달랐을 수 있다. 그러나 정의에 의해 그 길이가 1m라고 규정했으므로 그 길이의 단위를 정하는 사람은 그 막대 S의 길이를 재어보지 않고도 1m 임을 선험적(a priori)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S가 1m라는 것은 우연적-선험적 진리가 될 것이다. 또한 'Aristotle은 Plato 밑에서 공부한, 가장 위대한 인물중의 하나이다'고 우리가 정의한다고 하자. 이때 우리는 'Aristotle'이 가리키는 지시체를 고정하기 위해서 Aristotle의 우연적 속성(즉 Plato 밑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속성)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것 역시 정의이기 때문에 선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도 역시 우연적-선험적 진리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은  $H_2O$ 이다' 라든가 '금은 원자번호 79이다' 등과 같은 이론적 동일화(theoretical identification)문장은 일단 그것이 참인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필연적 진리인 것이고, 물의 분자구조나 금의 주기율은 경험적 탐구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므로 이런 문장들은 필연적-경험적 진리인 문장들이다.

이밖에도 중요한 필연적-경험적 진리의 예로서는 동일성 문장을 들 수 있겠다. 'Cicero = Tully'나 'Hesperus = Phosphorus'의 경우가 그 대표적 예인데, 우리는 'Cicero'가 지시하는 인물이 'Tully'가 지시하는 인물과 동일한지 여부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일단 동일한 인물임이 확인되면 'Cicero = Tully'는 필연적 진리이다. 그리고 수학적 명제, 예컨대 Goldbach의 추측—"모든 짝수는 두 소수(prime)의 합이다"—의 경우도 필연적 진리에 속한다. 현재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힐 방법은 없지만(그리고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참인 것이 일단 밝혀진다면 그것은 필연적 진리인 것이다.

우리는 본질적 속성을  $\Box((\exists x)(x = a) \supset Fa)$  혹은  $\Box(x)(\sim Fx \supset x \neq a)$ 로 정식화해 볼 수 있겠다. 이때 두번째 정식은 우리가 '다른 가능세계에 있는 한

대상  $b'$ 를 생각해서 그것을  $a$ 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를, 그 대상이  $a$ 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들중 어느 것을 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봄으로써, 테스트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세계적 동일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들이 동일한 대상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비록 한 본질적 속성이란 그것없이 한 대상이  $a$ 일 수는 없는 속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 의 본질적 속성들이 결합하여,  $a$ 가 되는 충분조건을 이룬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으며, 더 나아가 한 대상이 Nixon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반사실적 상황에 대한 순수 질적 기술을 요구할 정당한 근거는 없다. 우리는 이런 세부적인 것에 관여치 않고도 Nixon이 민주당원이었나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71, p. 152. 주 12)

### 3. 2. J. Hintikka의 개별화함수 이론

Hintikka의 가능세계 이론의 기본적 의도는 논리적 양상개념의 설명에 있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명제적 태도(propositional attitude) — ‘믿는다’(believe that), ‘안다’(know that), ‘지각한다’(perceive that) 등 —에 대한 설명에 있었다.

Hintikka는 상이한 가능세계(사건들의 행로(course of events) 혹은 가능한 사태(possible state of affairs))에서 동일한 개별자를 뽑아내는 방법으로서 개별화함수(individuating function)  $f$ 들의 집합  $F$ 를 도입한다.<sup>18)</sup>  $f \in F$ 는 각각의 주어진 모형  $\mu$ 의 개별자 영역  $I(\mu)$ 로 부터 최대한 하나의 개별자  $f(\mu)$ 를 가려내는 부분함수이다.  $f$ 가 부분함수이라는 것은 어떤 모형  $\mu$ 에서는  $f$ 의 값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집합  $F$ 의 도입을 통해서  $a \in I(\lambda)$ 가 동일한가 하는 물음은  $f(\mu) = a$ ,  $f(\lambda) = b$ 인  $f \in F$ 가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바뀌질 수 있다.<sup>19)</sup> 그리고  $f \in F$ 는 사실상 이름이나 개별자 상항으로 간주할 수는 있지만  $f$ 를 일상적 개별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 동일한 집합의 가능세계를 다루는 태도 두가지 상이한 통세계적 확인(cross-identification)의 방법, 즉 두가지 상이한 “개별화 함수들”의 집합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물리적 방법이요, 다른 하나는 지각적 방법이다.)

Hintikka의 개별화함수  $f$ 는 어떤 가능세계에 속해있는 개별자가 아니라 우리의 개념적 틀의 일부이다.<sup>20)</sup> 자신의 이러한 태도를 Hintikka는 ‘의미론적 신칸

18) Hintikka (1968a), (1968b)

19) Hintikka (1968a), pp.100-101.

트주의'(semantic neokantianism)라고 부른다.<sup>21)</sup> (“우리가 세계에 대해 말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개념들로 확 차있다. 심지어 개별자 개념도 여러 가능사태들을 다루는 개념적 전제들에 의존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 특정세계내의 성원에 대한 양화는 존재론(ontology)과 관련된 것이고 가능세계를 통한 양화는 관념론(ideology)의 문제라고 나누어 생각한다.<sup>22)</sup>

이렇게 볼 때 Hintikka의 ‘*f*’는 이름으로 간주할 수는 있지만 개념적 것들의 일부이기 때문에 Kripke의 고정지시어와는 차이가 난다.

### 3. 3. D. Lewis의 대본 이론

D. Lewis는 QML 대신에 ‘대본 이론’(counterpart theory)에 기반한 가능세계 이론을 전개한다. 대본 이론은 다음과 같은 기본술어와 공리들을 갖는다.<sup>23)</sup>

$Wx$  ( $x$ 는 한 가능세계이다.)

$Ixy$  ( $x$ 는 가능세계  $y$  안에 있다.)

$Ax$  ( $x$ 는 현실적이다.)

$Cxy$  ( $x$ 는  $y$ 의 대본이다.)

P1:  $\forall x \forall y (Ixy \supset \neg Wy)$  (어떤 것도 한 세계 외의 다른 세계 안에 있지 않다.)

P2:  $\forall x \forall y \forall z (Ixy \ \& \ Ixz \ \supset \ y = z)$  (어떤 것도 두 세계 안에 있지 않다.)

P3:  $\forall x \forall y (Cxy \supset \exists z Ixz)$  (하나의 대본은 한 세계 안에 있다.)

P4:  $\forall x \forall y (Cxy \supset \exists z Iyz)$  (대본을 가진 것은 한 세계 안에 있다.)

P5:  $\forall x \forall y \forall z (Ixy \ \& \ Cxz \ \supset \ x = z)$  (어떤 것도 그것이 속한 세계 내의 다른 것의 대본이 아니다.)

P6:  $\forall x \forall y (Ixy \supset Cxx)$  (어떤 것이든지 한 세계 안에 있어서 자신의 대본이다.)

P7:  $\exists x (Wx \ \& \ \forall y (Iy x \equiv Ay))$  (어떤 세계는 모든, 그리고 오직 현실적 대상을 포함한다.)

20) Hintikka (1968a), p. 109.

21) Hintikka (1968a), pp. 108-109.

22) Hintikka (1968a), p. 95; cf. Quine (1961a).

23) D. Lewis (1968), pp. 110-111.

P8:  $\exists xAx$  (어떤 것은 현실적이다.)

3.3.1. D. Lewis의 대본 이론에 있어서는 QML에 있어서의 동일성관계 대신에 대본관계가 나타난다. 대본관계란 유사성(similarity)의 관계인데, 유사성의 관계란 “여러 측면의 중요성의 경중과 유사성의 정도(degree)를 비교하여 나오는 결과”<sup>24)</sup>이다. 대본관계에 대해서 Lewi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당신의 대본들은 중요한 면에서 당신을,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매우 닮았다. 그 대본들은 그들의 세계 안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당신을 더 닮았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 자신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 각각은 그들 자신의 세계 안에 있으며 당신만이 여기 현실세계에 있기 때문이다.”<sup>25)</sup>

여기서 “중요한 면”이란 현실세계에 있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의 중요한 측면으로 나의 대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그의 대본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대본관계에서는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대본  $X_1$ 의 대본  $X_2$ 는 나의 대본은 아니다. 따라서 추이성도 성립하지 않는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세계  $W$  안의 대상  $X$ 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닮았지만 나의 대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1968, p113.) Lewis에 따르면 QML의 모든 문장은 대본이론의 문장으로 모두 번역가능하지만(1968, pp. 113.) 그렇다고 대본 이론의 모든 문장이 QML의 문장으로 번역되지는 않는다.

Lewis에 있어서는 본질은 대본과 상호정의 가능하다. 어떤 대상의 본질은 그것과 그것의 대본들 모두가 그리고 오직 그 대본들과만 공유하고 있는 성질이다. 물론 이 본질은 결코 대본의 본질은 아니다.<sup>26)</sup>

3.3.2. Lewis에 있어서 대본 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그의 가능세계 개념인데 그는 가능세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우연히 살게 된 세계 외에도 가능세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태가 현재 그런 것과는 달리 되었을 수도 있다. ... 우리는 사태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일상언어로 다음과 같이 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태가 현실적으로 그런 방식 이외에도, 사태가 그랬을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있다. ... 이 말은 특정한 하나의 기술에 대한 실체(entity)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태가 그랬을 수 있는 방식들’(ways things could have been)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 나는 (이 실체들을) ‘가능

24) D. Lewis (1968), p. 112.

25) D. Lewis (1968), p. 112.

26) D. Lewis (1968), p. 121.



세계들' 이라고 부르겠다.”(1973, p. 84.)

우리는 Lewis의 가능세계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다 :

(1) 가능세계들이 존재한다. (p84)

(2) 다른 가능세계들과, 나와 나의 환경(I and my surroundings)이 속해 있는 현실세계는 오직 그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만 다를 뿐 같은 종류의 것이다. (p. 85. ; p. 86. )

(3) ‘현실적’(actual)이란 형용사는 ‘나’, ‘지금’, ‘여기’와 같은 말처럼 지표적(indexical)이다.

즉, ‘현실적 세계’란 말은 그 말이 언표된 세계를 가리킨다.

(4) 가능세계는 원초적인(primitive) 것이다.

가능세계를 어떤 종류의 언어적 실체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가능세계는 그 자체로 인정할만한 실체들이다.

이와 같은 이론에서는 통세계적 동일성, 통세계적 동일성 확인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신, 모든 가능세계를 실재한다고 생각해야 하고, 유사성이란 매우 모호한—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잘 이해된 방식으로 모호한”—개념을 받아 들여야 한다.

Stalnaker는 형이상학적 실재론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되는 (2)를 버리고 (1)+(3)+(4)를 취하여 “중도적 실재론”(moderate realism)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sup>27)</sup> 또한 Plantinga (1974)는 D. Lewis의 극단적인 가능세계 실재론에서 핵심을 이루는 ‘현실적’이란 말에 대한 지표적 분석은 다음과 같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28)</sup>

(1) 이 세계는 현실세계이다.

(2) 이 세계는 이 세계이다.

(3)  $\alpha$ 는 현실세계이다.

Lewis에 따르면<sup>29)</sup> ‘이 세계’와 ‘현실세계’는 동의어로 쓰이므로 (1)은 (2)와 동일한 명제인데, 이는 명백히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 까닭은, Plantinga에 의하면, (1)과 (3)은 우연적 진리이고 항진인 (2)와는 다르다. (1)도 이 말이 언표된 세계에서만 참이기 때문에, 즉 우연적 진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2)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7) Stalnaker (1976).

28) Plantinga (1974), p. 50.

29) D. Lewis (1970), p. 185; D. Lewis (1973), p. 86.

Lewis의 가능세계 실재론은 “단지 양적으로만 무절제”<sup>30)</sup> (quantitatively unparsimonious)하기 때문에 개별화의 문제, 즉 통세계적 동일성 확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Feldman의 지적처럼,<sup>31)</sup>

(4) 나는, 사실상 지금 이러한 나와 전혀 달랐을 수 있다.

(4)' 나는 나와 전혀 다른 나의 대본을 갖는다.

에서 (4)'는 (4)의 적절한 번역이 되지 못한다. 물론 “나와 전혀 다른 나의 대본”은 나의 진정한 대본이 아니라고 답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중요한 면에 있어서” 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cf. Lewis (1968), p. 113) Lewis의 입장을 최대한 살린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측면에서”라는 그의 모호한 표현은 그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론적 취약성을 면할 길이 없다.

#### 4 맺 음 말

이상에서 우리는 세가지 특징적인 가능세계 의미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Kripke는 현실적 대상에 대한 고정지시어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가능한 사태에서 그 고정지시어에 의해 지시된 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발한다. 모든 가능세계를 통한 동일성은 그 대상의 자기동일성(self-identity)에 근거한다. 그런데 여러 가능한 사태(가능세계)에서 동일성을 갖는 그 개별자는 그저 ‘벌거숭이 개별자’가 아니요 그의 기원, 물질적 구성, 내적 구조 등을 본질적 속성으로 갖는다. 그리고 현실세계 이외의 가능세계란 구체적 개별자들의 가능한 사태로서,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Hintikka에 있어서는 여러 가능세계—그에 있어서는 주된 관심이 명제적 태도들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세계들은 하나의 명제적 태도에 있어서의 가능한 사태들로 나타나는데—에서 동일한 대상을 가려내는 함수  $f$ 의 존재에 의해 통세계적 동일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같은 집합의 가능세계들 내에서 통세계적 동일성을 확인하는 개별화 함수  $f$ 는 우리의 개념적 틀의 일부이다. 따라서 각 세계에서의 동일성 여부 및 그 세계에서의, 가령  $f(\mu)$ 의 존재문제는 개념적 전제에 의존한다. 이렇게 볼때 Kripke적인 “대상적인(de-re)” 필연성을 인정하는 본질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사실 그는 존재론적 상대성(ontological relativity)을 주장하는 Quine과 거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Kripke와 Hintikka의 또 다른 차이는—비록 이 두 사람의 관심영역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긴 하지만—Kripke가 가능한 개

30) D. Lewis (1973), p. 87.

31) Feldman (1971).

별자를 인정하는 데에 반해 Hintikka는 현실세계의 성원 이외의 가능적 개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한편, D. Lewis는 모든 가능세계들을 현실세계, 즉 현실적 사태와 동등하게 실재하는 것으로 보면서 각각의 가능세계 내의 각각의 개별자 사이의 동일성 관계를 인정치 않고 유사성 관계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가능세계 이론에서 발생하는 통세계적 동일성의 문제나 통세계적 동일성 확인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면에서 매우 닮은” 대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유사성’이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면’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서는 Lewis의 이론은 설명력을 잃을 것이다.

가능세계(possible world)가 문제삼아진 것은 일찌기 Leibniz에서부터이지만, 이것이 다시 본격적으로 문제시 되고 중요한 철학적 논점으로까지 부각된 것은 QML을 위한 형식적 의미론이 나타나게 되면서 양상(modality)이 순전히 언어적·논리적 성격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상에 귀속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이었다. Quine은, 애초에, QML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격하였다. QML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본질주의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본질주의의 인정을 거부한 것은, 의미론, 진리론 및 그의 그밖의 철학적 입장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가 본질주의를 받아들일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염려했던 바는 “가능적 개별자들의 빈민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과, 이들 개별자들의 동일성 확인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은 바로 가능세계 의미론자들이 떠맡은 과제이기도 했다.

가능세계 개념을 둘러싼 활발한 논의를 통해 종래의 의미론적 문제들뿐 만 아니라 존재론적, 인식론적 제문제, 특히 본질의 문제, 동일성의 문제, 심신이론의 문제 및 지시의 문제 등이 새로이 재조명되면서 철학적 난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찾아지고 있는 것 같다.

## 참 고 문 헌

- Copi, I. M. & Gould, J. A. (eds.) (1967) *Contemporary Readings in Logical Theory* (Macmillan Co.)
- Davidson, D. & Harman, G. (eds.) (1972)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D. Reidel Pub. Co.)
- Donnellan, K. (1972) "Proper Names and Identifying Descriptions" in: Davidson, D. & Harman, G. (eds.) (1972), pp. 356-379.
- Feldman, F. (1971) "Counterparts" in: *The Journal of Philosophy* 68., pp. 406-409.
- Frege, G. (1891) "Function and Concept" in: Geach, P. & Black, M. (eds.) (1952).
- \_\_\_\_\_ (1892) "On Sense and Reference" in: Geach, P. & Black, M. (eds.) (1952)
- Geach, P. & Black, M. (1952)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 Frege*, (Basil Blackwell).
- Hintikka, J. (1963) "Modes of Modality" in: Hintikka (1969).
- \_\_\_\_\_ (1966) "Existential Presuppositions & Their Elimination" in: Hintikka (1969).
- \_\_\_\_\_ (1968b) "Existential Presuppositions & Uniqueness Presuppositions" in: Hintikka (1969).
- \_\_\_\_\_ (1968a) "Semantics for Propositional Attitudes" in: Hintikka (1969).
- Hintikka, J. (1969a) "Modality and Quantification" in: Hintikka (1969).
- \_\_\_\_\_ (1969b) "The Logic of Perception" in: Hintikka (1969).
- \_\_\_\_\_ (1969) *Models for Modalities* (D. Reideal Pub. Co.)
- Hughes, G. H. & Cresswell, M. J. (1968) *An Introduction to Modal Logic* (Methuen)
- Kripke, S. A. (1959) "A Completeness Theorem in Modal Logic" in: *The Journal of Symbolic Logic* 24, pp. 1-14.
- \_\_\_\_\_ (1963) "Semantical Considerations on Modal Logic" in: Linsky, L. (ed.) pp. 63-72.
- \_\_\_\_\_ (1970) "Naming and Necessity" in: Davidson, D. & Harman, G. (eds.) pp. 253-355, pp. 763-769.
- \_\_\_\_\_ (1971) "Identity and Necessity" in: Munitz, M. K. (ed.) pp. 135-164.
- Lewis, D. K. (1968) "Counterpart theory and Quantified Modal Logic" in: Loux, M. J. (ed.) pp. 110-128.
- \_\_\_\_\_ (1970) "Anselm & Actuality" in: *Nous* 4, pp. 175-188.
- \_\_\_\_\_ (1973) *Counterfactuals* (Harvard Univ. Pr.)
- Linsky, L. (ed.) (1971) *Reference and Modality* (Oxford Univ. Pr.)
- Loux, M.J. (ed.) (1979) *The Possible and The Actual* (Cornell Univ. Pr.)
- Munitz, M. (ed.) (1971) *Identity and Individuation* (N.Y. Univ. Pr.)
- Plantinga, A. (1974) *The Nature of Necessity* (Oxford Univ. Pr.)
- Quine, W.V.O. (1948) "On What There Is" i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pp. 1-19.
- Quine, W.V.O. (1961a) "Note on the Theory of Reference" in: Quine (1961) pp. 130-8.
- \_\_\_\_\_ (1961)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per & Row)
- \_\_\_\_\_ (1969a) "Existence and Quantification" in: Quine (1969) pp. 91-113.
- \_\_\_\_\_ (1969) *Ontological Relativity* (Columbia Univ. Pr.)
- \_\_\_\_\_ (1970) *Philosophy of Logic* (Prentice-Hall)
- Russell, B. (1905) "On Denoting" in: Russell (1956) pp. 41-56.

- \_\_\_\_\_ (1918) "The Philosophy of Logical Atomism" in Russell (1956) pp. 177-281.  
\_\_\_\_\_ (1956) Logic and Knowledge (Allen & Unwin)  
Searle, J.R. (1969) Speech Acts (Cambridge Univ. Pr.)  
Stalnaker, R.C. (1976) "Possible Worlds" in: Nous 10, pp. 65-75.  
Strawson, P.F. (1950) "On Referring" in: Copi, I.M. & Gould, J.A. (eds.) pp. 105-117.  
[originally in: Mind 59 (1950) pp. 320-44]  
\_\_\_\_\_ (1959) Individuals, Anchor Books (1963) Doubleday & Co., Inc.  
Wittgenstein, L. (1922)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Humanities Pr.)